

성인애착과 성격특성이 낭만적 고독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윤 영

민 윤 기[†]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여성 338명(남자 132명, 여자 206)의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과 낭만적 고독 간의 관계에서 결혼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낭만적 고독은 안정형 애착, 호감성, 자기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몰입형 애착, 거부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향성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안정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호감성, 자기존중감은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며 결혼만족이 완전매개 하였다. 몰입형 애착과 거부형 애착 역시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지만 결혼만족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안정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거부형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두려움형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결혼만족을 경험하며, 결혼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착양식, 낭만적 고독, 성격특성, 결혼만족

* 이 논문은 2014년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민윤기,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E-mail: ykmin@cnu.ac.kr

고독은 기존 관계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Gierveld & Havens, 2004) 혹은 타인과 원하는 수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불유쾌한 정서 반응(Russell, Peplau, & Cutrona, 1980)으로 기술된다. 또는 현재의 관계가 바람직하거나 허용되는 관계보다 적을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Gierveld, 1987)으로 기술된다. Weiss(1994)는 배우자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족, 자녀 그리고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고독에 놓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에 대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대상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고독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Weiss(1973)는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깝고 지지적인 배우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연결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독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주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독을 상황과 원인에 따라 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독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고독은 지지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나 붕괴로 나타나는 감정이나 지루함 또는 거부당하는 느낌이며, 정서적 고독은 친밀하고 가까운 정서적 애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쓸쓸함이나 불안 또는 불안정감의 느낌이다. 사회적 고독과 정서적 고독의 구분은 몇몇 연구에서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김교현, 김지환, 1989). 또한 DiTommaso와 Spinner(1993)는 Weiss(1973)의 구분을 바탕으로 고독을 사회적 고독, 가족 고독 그리고 낭만적 고독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DiTommaso와 Spinner(1993)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년, 최근에 사별한 미망인,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가족과 친구,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질적으로 다른 경

험을 하므로, 정서적 고독은 애착대상으로의 배우자나 이성친구에 한정시키는 낭만적 고독과 가족 고독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ramer와 Barry(1999)는 사회적 정서적 고독척도(DiTommaso & Spinner, 1993)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그리고 가족 고독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은 세 가지 고독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Drennan 등(2008)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독, 낭만적 고독, 가족 고독에서 차이를 보고하였다. 즉 대학생과 노인들 모두 세 가지 고독에서 상이한 모습들을 나타내었다.

고독하다는 것은 단지 혼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동료와 일을 하거나 가족과 있을 때, 심지어 데이트를 할 때도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지 못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혼자 여행하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처럼 함께 있어도 고독할 수 있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해치는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McGuire와 Clifford(2000)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보다 유전가능성이 고독에 대한 개인차에 더 기여한다. 즉 고독한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경향성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기질과 성격특성을 고독관련 요인으로 보고하는 Launaigh와 Lawler(2008), 개인적 성격특성으로 보고하는 Cacioppo, Hughes, Waite와 Thisted(2006)에 의해 지지되었다.

50세부터 68세 성인들을 연구한 Cacioppo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고독한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호감성(agreeableness)과 외향성(extraversion)을 나타내었다. 18세부터 25세까지의 대학생과 성인초기의 사람들 220명을 연구한 Atak(2009)도 고독이 외향성, 호감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Nayyar와 Singh(2011)도 고독은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Long과 Martin(2000)도 외향성은 고독을 부적으로 예언하며, 불안은 고독을 정적으로 예언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재와 유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정도를 나타내며, 정서적 불안정성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 불안감, 피로감, 긴장의 정도를 나타내고,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다섯 가지 성격차원들 중에서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Bradbury & Fincham, 1988; Huston & Houts, 1998; Karney & Bradbury, 1995).

고독은 성격특성뿐 아니라 자기존중감과도 관련이 있다(Marangoni & Ickes, 1989). Cacioppo 등(2006)의 연구에서는 고독이 증가하면, 자기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주, 정혜경, 안옥희, 신행우, 2004; 이선미, 2005)에서도 노년기 외로움은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높은 자기존중감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연합되고(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낮은 자기존중감의 소유자들은 대인관계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Haines, Scalise, & Ginter, 1993), 자

기존중감이 낮은 개인들은 고독을 경험하기 쉬울 것이다.

영아와 양육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Bowlby(1969)는 동물행동학적 이론을 적용하였다. 영아의 모든 애착행동들은 양육자를 영아에 접근하게 하고, 영아를 돌보고 영아와 상호작용하도록 하여 영아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진화역사에서 보유된 적응적 행동이다. 이 애착행동에 기초하여 Weiss(1973)는 인간이 친밀감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욕구가 결핍될 때 나타나는 반응의 하나로 고독을 설명하였다.

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들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애착은 개인의 전생애 동안에 어머니 이외의 어떤 사람들과도 형성될 수 있는 정적 유대로 인식된다(장휘숙, 1997).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구체적인 애착 행동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인들은 애착대상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거나 혹은 공상이나 상상을 통해 애착인물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에 대한 애착표현 방식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애착은 성인기 동안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장휘숙, 2012).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형성 과정으로 설명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형(secure) 애착 소유자들의 사랑은 신뢰나 우정 같은 긍정적 정서에 기초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이 의존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걱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반면 회피형(avoidant) 애착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게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까워질까 걱정하므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어렵다. 불안/양가형(anxious/ambivalent) 애착 소유자들은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꺼린다고 생각하며,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애착유형의 양식에 따라 가까운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geci와 Genocoz(2006)는 안정형 애착 소유자들이 가장 큰 관계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Simpson(1990) 또한 안정형 애착 소유자들이 회피형 애착 소유자들보다 더 높은 관계만족을 경험하고, 불안/양가형 애착을 소유한 여성들이 낮은 관계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Brennan과 Shaver(1995)도 안정형 애착 소유자들이 회피형 애착 소유자나 불안/양가형 애착 소유자들보다 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안정형 애착 소유자들이 타인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파트너와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때에도 여전히 상대방에게 전념하며, 이를 통하여 만족스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피형이나 불안/양가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관계에 대한 만족이 낮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의 관계만족과 애착에 대한 연구들도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보고한다. 322쌍의 결혼한 사람들을 연구한 Banse(2004)는 결혼만족이 개인의 애착양식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이 더 높은 결혼만족을, 불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이 더 낮은 결혼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과 결혼만족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322쌍의 결혼한 부부들을 연구한 Senchak와 Leonard(1992)도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이 더 큰 친밀함과 결혼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김민희와 민경환(2007)과 Maysless 등(1997)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한 애착양식을 확장하여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기초로 하는 4범주 애착양식(안정형 애착, 거부형 애착, 몰입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을 제안하였다.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 모델을 가지기 때문에 친밀성과 자율성에 있어서 편안하며,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닌다. 거부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 모델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함에 대해 거부적이고 반의존적이다. 이들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지만, 낮은 사교성을 지닌다(Duggan & Brennan, 1994). 몰입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 모델을 가지기 때문에 관계에 몰입하며, 타인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두려움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 모델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한 것을 두려워하며 회피적이고 소심하다(Brennan, Shaver, & Tobey, 1991; Duggan & Brennan, 1994). Bartholomew(1990)는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개인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의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들의 애착유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자신과 배우자를

신뢰하며 배우자를 활용가능하다고 지각하므로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한다(Kobak & Hazan, 1991). 때문에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결혼생활에서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며(Diehl, Elnick, Bourbeau, & Labouvie-Vief, 1998), 부부간에도 문제를 적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Volling, Nataro, & Larsen, 1998). Mikulincer와 Floria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정서적 유대인 결혼 응집성과 문제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결혼 적응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반면 회피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고하였고, 불안/양가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높은 응집성과 낮은 적응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Carnelley, Pietromonoco와 Jaffe(1996)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보살핌을 더 제공한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일수록 두려움형과 회피형 애착에서 낮은 수준을 보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애착양식에 따라 서로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이 다르며(Collins & Feeney, 2000), 이로 인하여 개인의 정서반응 및 정서조절 양식 또한 달라질 수 있고(Rusbult, Zembrodt & Gunn, 1982), 이는 결혼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로 인해 관계의 질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AAI(Adult Attachment Interview)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애착을 측정된 Kobak과 Sceery (1988)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아탄력성과 낮은 수준의 불안 및 적대감을 지닌다고 평가받았다. 동시에 자신은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며 낮은 고독 수준을 경험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회피형(거부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낮은 자아탄력성

과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지닌다고 평가받았다. 동시에 자신은 가족들로부터 더 적은 지지를 받으며 더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몰입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낮은 자아탄력성과 높은 수준의 불안을 지닌다고 평가받았다. 동시에 자신은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회피형(거부형) 애착의 소유자들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또한 고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Matsushima & Shiomi, 2001).

애착양식과 고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일관성 있게 불안정 애착과 고독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Ernst & Cacioppo, 1999; Goossens, Marcoen, Van Hees, & Van de Woestijne, 1998; Larose, Guay, & Boivin, 2002), 안정형 애착을 형성할수록 낮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DiTommaso, Brannen-McNulty, Ross, & Burgess, 2003).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고독을 경험하고, 회피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 다음 수준의 고독을 경험하며, 불안/양가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고독을 경험한다. 물론 회피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적게 보고하기 때문에 불안/양가형 만큼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

홍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Man과 Hamid(1998)에 의하면, 두려움형 애착의 소유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하고, 몰입형 애착의 소유자들과 거부형 애착의 소유자들이 차례로 높은 수준의 고독을 경험한다. 이는 불안정 애착의 소유자들과 회피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Bartholomew & Horowitz, 1991; 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타인에게 더 적대적이다(Mikulincer, Hirschberger, Nachmias, & Gillath, 2001). 타인과의 낮은 관계의 질은 고독의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애착양식은 고독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낭만적 관계에서는 더 좋은 지표가 된다(DiTommaso & Spinner, 1993).

애착은 낮은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받고 위안을 얻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접근성에 기초한다(Bowlby, 1969).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배우자가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주는가에 따라 결혼만족이 결정된다(Collins & Feeney, 2000). 결혼관계에서의 만족은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이다. 이러한 결혼만족을 성격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Bradbury & Fincham, 1988; Huston & Houts, 1998; Karney & Bradbury, 1995). 이들은 성격특성과 개인간 상호작용이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이 결혼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Karney와 Bradbury(1995)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는 부부들은 스트레스 환경을 인내하는 데 취약하며, 이는 전반적인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Bradbury와 Fincham(1988) 또한 성격특성이 부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성격특성은 일상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맥락을 정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격특성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고, 성공적인 관계와 역기능적인 관계를 예언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Huston & Houts, 1998). Donnellan, Conger와 Bryant

(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적인 성격특성에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다. 이들은 결혼관계에 있는 400쌍을 대상으로 Costa와 McCrae(1989)의 Big Five 성격차원과 전반적인 결혼관계를 조사하였다. 성격특성들 중에서 정서적 불안정성과 호감성이 전반적인 결혼평가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애착양식은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 평가인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만족은 또한 낭만적 고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과 낭만적 고독의 관계에서 결혼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 매개모형을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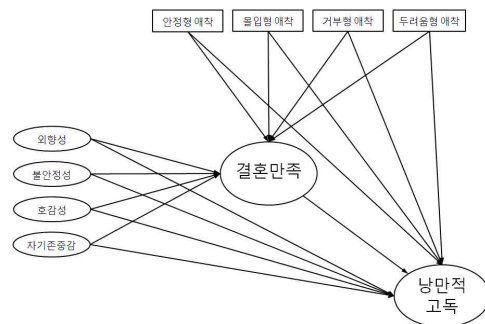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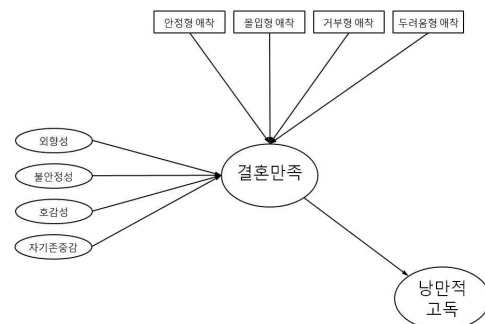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연구모형인 그림 1은 독립변인들이 고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혼만족을 거쳐 고독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대안모형인 그림 2는 독립변인들이 고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결혼만족을 통해서만 고독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모형이다. 이러한 매개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 및 결혼만족이 낭만적 고독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와 성인기 사람들의 낭만적 고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안정형 애착양식, 외향성, 호감성, 자기존중감, 결혼만족은 낭만적 고독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결혼만족은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과 낭만적 고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배우자가 있는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으로 D시와 Y군에서 표집을 하였다. 대상자들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미응답 문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 132명, 여자 20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43.92세(SD=7.83), 여자는 43.10세(SD=7.46)이었다. 이들의 학력의 분포는 중학교졸업이하 1.5%, 고등학교졸업 39.9%, 대학교졸업 47.6%, 대학원이상 10.9% 이고, 직업의

분포는 전문직 19.2%, 사무직 26.0%, 기술직 7.1%, 기능직 7.1%, 기타 27.5%, 그리고 무직 11.8%이었다.

측정도구

사회적, 정서적 고독 단축형 척도

DiTommaso 등(2004)이 개발하고 이운영(2014)이 타당화한 15문항의 성인용 사회적, 정서적 고독 단축형(SELSA-S) 척도 가운데 낭만적 고독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74이다.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과 호감성 척도

장휘숙과 김나연(2011)이 변안한 Costa와 McCrae(1994)의 Big Five 성격검사 가운데 외향성(extraversion),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 그리고 호감성(agreeableness)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그리고 호감성 척도의 원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높은 외향성 문항 6개, 정서적 불안정성 문항 7개 그리고 호감성 문항 5개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그리고 호감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외향성 .734, 정서적 불안정성 .758 그리고 호감성 .842이다.

자기존중감 척도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변안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Rosenberg (1979)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형으로 평정한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77이다.

애착 척도

김민희와 민경환(2007)이 번안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RQ(Rel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RQ는 안정형 애착, 거부형 애착, 몰입형 애착 그리고 두려움형 애착에 대하여 설명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애착양식 각각에 대하여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점 리커트형으로 평정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애착양식과 더 일치하는 것이다.

결혼 만족도

장춘미(2001)가 번안한 Norton(1983)의 QMI(Quality of Marriage Index)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27이다.

자료처리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상관분석은 유의도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Curran, West와 Finch(1996)의 제안에 따른 정상성을 확인하였

다. 정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0에 가까울수록 정규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7.0(SPSS 20.0 출력물에서는 첨도값 4.0 이상) 이상일 때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Klein, 2011). 본 연구의 변수들은 왜도는 -.352에서 +.426의 범위에, 첨도는 -.920에서 +.500의 범위에 있으므로 자료의 정상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의 정상성을 가정하고 모수치의 추정에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모형들의 적합도 평가에는 χ^2 값 대신에 홍세희(2000)가 권장한 적합도 지수 TLI, CFI 그리고 RMSEA를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각 모형의 경로의 유의성과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을 검증하고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 결혼만족, 그리고 낭만적 고독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수,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측정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낭만적 고독은 안정형 애착($r = -.468,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몰입형 애착($r = .392, p < .001$)과 거부형 애착($r = .490, p < .001$), 두려움형 애착($r = .308, p < .001$)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결혼만족($r = -.790,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정서적 불안정성($r = .218,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그리고 호감성($r = -.324,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외향성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자기존중감($r = -.341,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형 애착, 결혼만족, 호감성, 자기존중감이 클 때, 낭만적 고독은 낮은 낭만적 고독을 보였다. 또한 몰입형 애착, 거부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정서적 불안정성의 수준이 높을 때, 높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검증

본 연구의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들은 모두 단일 요인들이므로, 문항수가 적은 요인들은 개별문항을 지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수가 5개 이상인 요인들은 항목 묶음 방법을 사용하여 지표변인을 만들었다. 항목을 묶는 방법은 요인부하량을 이용한 균형할당방법을 사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고독은 각 문항을 고독의 지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외향성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 문항씩 합산하여 세 개의 지표변인을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성은 7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두 문항씩 합산하여 두 개의 지표변인을 만들었고 나머지 세 문항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표변인을 만들었다. 호감성과 결혼만족도는 모두 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두 문항과 세 문항을 합산하여 두 개씩의 지표변인으로 만들었다.

표 1. 연구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안정형 애착	몰입형 애착	거부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결혼만족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	자기 존중감	낭만적 고독
안정형 애착	-									
몰입형 애착	-.225***	-								
거부형 애착	-.277***	.510***	-							
두려움형 애착	-.159**	.282***	.393***	-						
결혼만족	.492***	-.331***	-.412***	-.272***	-					
외향성	.033	-.027	-.049	-.006	.078	-				
정서적 불안정성	-.154**	.223***	.224***	.052	-.275***	-.292***	-			
호감성	.264***	-.133*	-.201***	-.071	.366***	.114*	-.232***	-		
자기존중감	.342***	-.210***	-.252***	-.078	.396***	.246***	-.522***	.432***	-	
낭만적 고독	-.468***	.392***	.490***	.308***	-.790***	-.099	.218***	-.324***	-.341***	-
평균	3.36	1.98	1.66	2.07	3.52	2.95	2.72	3.36	2.98	2.41
표준편차	1.08	.85	.82	1.00	8.43	.63	.57	.61	.43	.76

* $p < .05$, ** $p < .01$, *** $p < .001$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89)=252.93$, $p < .001$ 이고, CFI=.94, TLI=.92, RMSEA=.074로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1$), 표준화 회귀계수는 모두 .5를 넘었다. 이는 모든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측정변인들에 의해서 적절히 측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모형의 검증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과 낭만적 고독 간에 결혼만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부분매개모형, 대안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이 낭만적 고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혼만족을 매개로 하여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결혼만족의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대안모형으로는 애착양식, 성격특성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낭만적 고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결혼만족을 매개로 하여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는 결혼만족의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두 모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더 좋은지를

알아보고 더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안모형의 경우 CFI .936, TLI .915, 그리고 RMSEA .066이다. 연구모형의 경우는 CFI .946, TLI .920, 그리고 RMSEA .064이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모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 완전히 포함되는 모형이므로, χ^2 차이검증을 통하여 어떤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 판단할 수 있다(박광배, 2000). χ^2 차이검증 결과를 표 2에 함께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31.44이고 자유도의 차이 값은 8로, 유의수준 .05에서 자유도 8인 χ^2 분포의 임계값인 17.5보다 크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차이검증 결과가 유의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모형인 연구모형(결혼만족의 부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이 직접적으로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혼만족을 매개로 하여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안정형 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316($p < .001$), 거부형 애착이 결혼만족에

표 2.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
대안모형 (완전매개)	336.28***	137	.938	.915	.066	
연구모형 (부분매개)	304.84***	129	.946	.920	.064	31.4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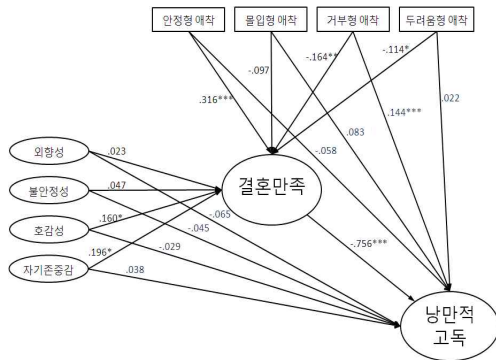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

미치는 경로계수는 $-.164(p < .01)$, 두려움형 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114(p < .05)$, 자기존중감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196(p < .05)$, 호감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160(p < .05)$ 그리고 결혼만족이 낭만적 고독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756(p < .001)$ 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2를 지지하는 것으로, 개인의 안정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형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두려움형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결혼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혼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혼만족이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과 낭만적 고독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애착양식, 성격특성 그리고 자기존중감 → 결혼만족)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결혼만족 → 낭만적 고독)에 대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몰입형 애착이 낭만적 고독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총효과는 $.157(p < .01)$ 로 유의미하였고, 거부형 애착이 낭만적 고독에 미치는 직접효과($.144(p < .001)$), 간접효과($.124(p < .05)$) 그리고 총효과($.268(p < .001)$)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잠재변인들의 경로별 직접 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숫자는 표준화 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¹⁾	총효과
안정형 애착 → 낭만적 고독	-.058	-.239***	-.297***
몰입형 애착 → 낭만적 고독	.083	.074	.157**
거부형 애착 → 낭만적 고독	.144***	.124*	.268***
두려움형 애착 → 낭만적 고독	.022	.086*	.108*
외향성 → 낭만적 고독	-.065	-.017	-.082
정서적불안정성 → 낭만적 고독	-.045	-.035	-.080
호감성 → 낭만적 고독	-.029	-.121*	-.150*
자기존중감 → 낭만적 고독	.038	-.148*	-.110

* $p < .05$, ** $p < .01$, *** $p < .001$

¹⁾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음

논 의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여성들의 낭만적 고독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 결혼만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과 낭만적 고독 간의 관계에서 결혼만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해보았다. 먼저 낭만적 고독은 안정형 애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몰입형 애착, 거부형 애착 그리고 두려움형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낭만적 고독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호감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외향성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안정형 애착 수준이 높고, 그리고 호감성과 자기존중감이 높을 때 낮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몰입형 애착, 거부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의 수준이 높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 때 높은 낭만적 고독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일수록 낮은 수준의 고독을 보고한다는 DiTommaso 등(2003)의 연구, 불안정 애착과 고독이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들(Ernst & Cacioppo, 1999; Goossens et al., 1998; Larose et al., 2002)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격특성들은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낭만적 고독은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호감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Atak(2009)의 연구뿐 아니라 Nayyar과 Singh(2011)의 연구, 그리고 Cacioppo 등(2006)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독과 외향성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들(Atak, 2009; Cacioppo et al., 2006; Long & Martin, 2000; Nayyar & Singh, 2011)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낭만적 고독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일차원의 고독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적 고독에 대하여 탐색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결혼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우자로 인한 고독, 즉 낭만적 고독에는 외향성보다는 다른 변인들이 더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낭만적 고독과 자기존중감의 부적 상관은 선행연구들(박영주 등, 2004; 이선미,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서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Haines et al., 1993),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실패할 경우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결혼만족은 안정형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몰입형 애착, 거부형 애착 그리고 두려움형 애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결혼만족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호감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외향성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자기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안정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호감성과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높은 결혼만족을 경험하며, 몰입형 애착, 거부형 애착 및 두려움형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낮은 결혼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인 애착과 결혼만족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이희숙과 박경(2008)의 연구, 안정 애착인 개인들이 불안정 애착의 개인들보다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이

더 높다고 보고한 김민희와 민경환(2007)의 연구, 남편과 아내 모두 안정형 애착일 경우가 불안정 애착일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김광은, 2005; 김나영, 정영숙, 2011)을 지지하는 것이다. 안정형 애착을 지니는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며, 배우자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더 적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안정형 애착의 성향을 지닐수록 배우자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일 것이다.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결혼만족에서도 다른 애착의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이며, 이들은 배우자로 인하여 경험하는 낭만적 고독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 호감성과 달리 외향성은 결혼만족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격특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Donnellan, Conger와 Bryant(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마도 외향성은 사회적인 관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중요한 특성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애착양식, 성격특성, 자기존중감과 낭만적 고독의 관계에서 결혼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안정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호감성, 자기존중감은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만족이 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이 지니는 안정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호감성, 자기존중감은 직접적으로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혼만족을 통해서만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정형 애착의 성향이 낮을수록, 두려움형 애착의 성향이 높을수록, 호감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낭만적 고

독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결혼만족이 낮을 때 낭만적 고독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고독감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부형 애착은 낭만적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만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이 몰입형 애착과 고독을, 그리고 거부형 애착과 고독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몰입형 애착의 성향이 높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가지므로 자기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거부형 애착의 성향이 높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델을 가지므로 타인과의 친밀함에 대해 거부적이고 반의존적인 성향이 가지는 다른 부분들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성인후기가 되었을 때 부딪히는 낭만적 고독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성인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행복한 노년기는 행복한 중년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중년기 부부와 노년기 부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척도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여 다수의 문항을 사용하는 애착척도보다는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애착양식

을 범주로 구분하지 않고 애착양식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개의 애착양식으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의 32%가 두 곳 이상에 표기를 하였으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였기 때문이다. 4범주의 애착양식으로 구분하였을 때 성인초기 사람들의 약 50%는 안정형 애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불안정한 애착양식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반면 성인후기의 사람들을 연구한 Webster(1997)는 거부형 애착을 지니는 사람들이 52%, 안정형 애착을 지니는 사람들이 33%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양식이 전생애 동안 유지된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동안의 애착양식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과 더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Feeney, 1994). 본 연구에서 안정형 애착에 가장 높은 점수를 표시한 사람은 194명(57%), 몰입형 애착에 가장 높은 점수를 표시한 사람은 12명(4%), 거부형 애착에 가장 높은 점수를 표시한 사람은 6명(2%), 두려움형 애착에 가장 높은 점수를 표시한 사람은 17명(5%)으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안정형 애착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표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Feeney(1994)에 의하면, 10년 정도의 결혼 기간은 애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며, 배우자와의 관계 조절에 따라 애착은 변할 수 있다(Birnbaum, Orr, Mikulincer, & Florian, 1997). 본 연구는 약 30%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점에서 애착양식이 변한다는 Baldwin과 Fehr(1995)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

을 포함하는 애착양식에 따른 낭만적 고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배우자에 대한 고독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여성 각 개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부부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애착양식과 성격 특성들이 결혼만족을 매개로하여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다. 개인의 애착양식에 따라 결혼만족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김민희, 민경환, 2007; Banse, 2004; Maysless et al., 1997; Senchak & Leonard, 1992), 부부 애착양식 조합에 따라 결혼만족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김민희와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의 애착양식으로 구분되는 16개의 모든 조합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표집이 가능한 조합인 안정-안정, 안정-불안정, 불안정-불안정의 세 집단을 분석하였을 때, 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만족은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므로 상대방 효과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설계를 갖추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은 (2005).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교현, 김지환 (1989). 한국판UCLA 고독척도. 학생생활연구(충남대학교), 16, 13-30.
- 김나영, 정영숙 (2011). 중년기 부부의 애착 유

- 형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59-81.
- 김민희, 민경환 (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영재, 유진 (2005). 성격 5요인과 여가행동에 측 요인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527-537.
-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박영주, 정혜경, 안옥희, 신행우 (2004). 노인의 외로움과 건강행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6(1), 91-98.
- 이선미 (2005). 노년기 부부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37-54.
- 이운영 (2014). 성인기 고독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이희숙, 박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39-454.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휘숙, 김나연 (2011). 노년기 고독과 성격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19.
- 통계청 (2010). 2010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에서 인용.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tak, H. (2009). Big five traits and loneliness among Turkish emerging adults.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31, 987-991.
- Baldwin, M. W., & Fehr, B. (1995). On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tyle ratings. *Personal Relationships*, 2, 247-161.
- Banase, R. (2004).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Evidence for dyadic configuration effec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73-282.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irnbaum, G. E., Orr, I., Mikulincer, M., & Florian, V. (1997). When marriage breaks up: Does attachment style contribute to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643-65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8).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close relationships: A contextual model of marriage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13-721.
- Brennan, K. E.,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s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rennan, K. E., Shaver, P. R., & Tobey, A. (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51-466.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151.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257-278.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4). Stability and change in personality from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In C. F. Halverson, Jr., G. A. Kohnstamm, and R. P. Martin (Eds.), *The Developing Structure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from Infancy to Adulthood*. Hillsdale, NJ: Erlbaum.
- Cramer, K. M., & Barry, J. E. (1999).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s of loneliness: A comparison of sub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491-502.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56-1669.
- DiTommaso, E., Brannen, C., & Best, L. A. (2004). Measurement and validity characteristics of the short vers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1), 99-119.
- DiTommaso, E., Brannen-McNulty, C., Ross, L., & Burgess, M. (2003). Attachment styl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303-312.
- DiTommaso, E., & Spinner, B. (1993).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SELS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27-134.
- Donnellan, M. B., Conger, R. D., & Bryant, C. M. (2004). The big five and enduring marriag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 481-504.
- Drennan, J., Treacy, M., Butler, M., Byrne, A., Fealy, G., Frazer, K., & Irving, K. (2008). The experience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in Ireland. *Ageing and Society*, 28, 1113-1132.
- Duggan, E. S., & Brennan, K. E. (1994). Social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Bartholomew's adult attachment typolog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1), 147-153.

- Egeci, I. S., & Genoçöz, T.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Importance of communication skill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3), 383-391.
- Ernst, J. M., & Cacioppo, J. T. (1999). Lonely hear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onelines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8*(1), 1-22.
- Feency, J. A.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 333-348.
- Gierveld, J. (1987).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9-128.
- Gierveld, J., & Havens, B. (2004).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troduction and overview. *Canadian Journal on Aging-Revue Canadienne du Vieillessement, 23*, 109-113.
- Goossens, L., Marcoen, A., Van Hees, S., & Van de Woestijne, O. (1998). Attachment style and loneliness in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3*, 529-542.
- Haines, D. A., Scalise, J. J., & Ginter, E. J. (1993). Relationship of loneliness and its affective elements to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73*, 479-482.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49-560.
- Huston, T. L., & Houts, R. M. (1998). The psychological infrastructure of courtship and marriage: The role of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T. N. Bradbury (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 114-15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bak, P. R., & Sceery, A. (199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rose, S., Guay, F., & Boivin, M. (2002).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hood: A test of two mode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684-693.
- Launaigh, C. O., & Lawler, B. A. (2008). Loneliness and the health of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3*, 1213-1221.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ong, M. V., & Martin, P. (2000). Personality,

- relationship closeness, and loneliness of oldest old adult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5B(5), 311-319.
- Man, K., & Hamid, P. N.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prototypes, self-esteem, loneliness and casual attributions in Chinese trainee teach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357-371.
- Maragoni, C., & Ickes, W. (1989). Loneliness: A theoretical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93-128.
- Matsushima, R., & Shiomi, K. (2001). The effect of hesitancy toward and the motivation for self-disclosure on loneliness among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9(7), 661-670.
- Mayseless, O., Sharabany, R., & Sagi, A. (1997). Attachment concerns of mothers as manifested in parental, spousal, and friendship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255-269.
- McGuire, S., & Clifford, J.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loneliness in children. *Psychological Science*, 11, 487-491.
- Mikulincer, M., & Florian, V.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spouses' self-reports of attachment styles and representations of family dynamics. *Family Process*, 38, 69-83.
- Mikulincer, M., Hirschberger, G., Nachmias, O., & Gillath, O. (2001). The affective component of the secure base schema: Affective priming with representations of proximity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305-321.
- Nayyar, S., & Singh, B. (2011). Personality correlates of loneliness. *Journal of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7(1), 163-168.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sbult, C. E., Zembrodt, I. M., & Gunn, L. K. (1982).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romantic invol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230-1242.
- Russell, D. W.,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enchak, M., & Leonard, K. E. (1992).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9, 51-64.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Trzesniewski, K. H., Do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205-220.
- Volling, B. L., Nataro, P. C., & Larsen, J. J.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Relations with emotional well-being, marriage, and parenting. *Family Relations*, 47, 355-367.
- Webster, J. D. (1997). Attachment style and well-being in elderly adults: A preliminary

- investigation. *Canadian Journal on Aging*, 16(1), 101-111.
- Weiss, R. S. (1994). Is the attachment system of adults a development of Bowlby's attachment system of childhood? *Psychological Inquiry*, 5, 65-67.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차원고접수 : 2015.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5. 12. 07.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9.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Romantic Loneliness: Mediator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Woon-Yeong Lee

Yoon-Ki M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attachment styl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mediator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romantic loneliness in a sample of participants (132 male, 206 female). Results showed that romantic loneliness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cure attachment, agreeableness, and self-esteem; loneliness was also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eoccupied attachment, dismissive attachment, fearful attachment, and neuroticism. No relationships emerged with extraversion. Secure attachment, fearful attachment, agreeableness, and self-esteem influenced romantic loneliness and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with marital satisfaction. Preoccupied and dismissive attachment also influenced romantic loneliness but onl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with marital satisfaction. Study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style, romantic loneliness, personality characteristics